

단기 선교팀 신청서 (2)

※ Team No : 2019-010

1. 신청부서 : 교구위원회

(팀명 : 몰도바2팀)

2. 선교국가 : 몰도바

3. 사역지 : 카시나우

4. 공 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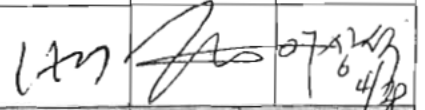
5. 사역기간 : 2019년 07월 16일 (화) ~ 2019년 07월 23일 (화) - 7박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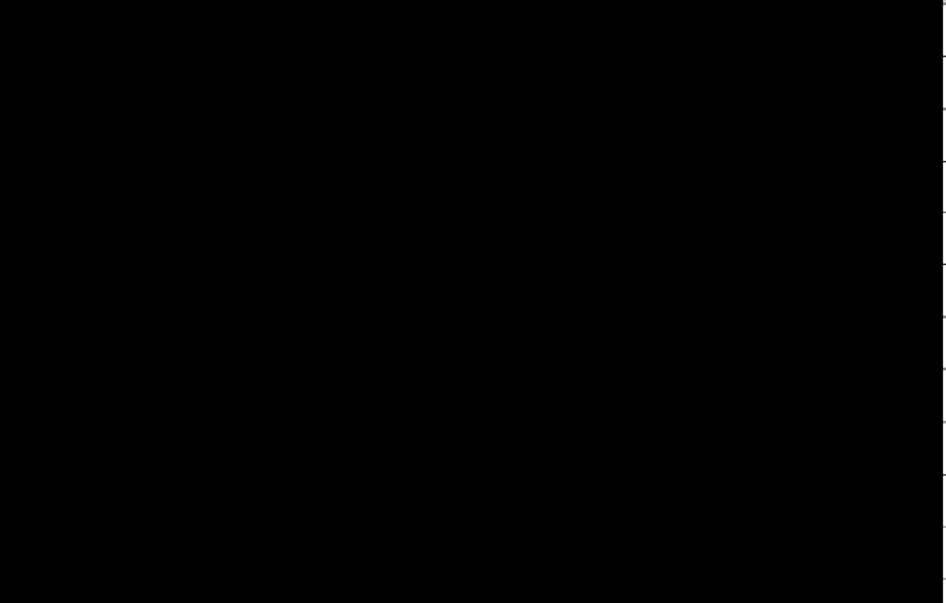
선교위원회 확인

서기

지도목사

위원장



No	직책	직분	성명(한글/영문)	교구	지역	CMTC 1차2차	교적번호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E-Mail
1	팀장	사무 안수집사	강남석 Kang Nam Seok	1		○ ○	91-1020					
2	총무	사무 권사	홍정호 Hong Jung Ho	15		○ ○	89-1542					
3	서기	사무 서리집사	정종원 Jeong Jong Won	15		X X	96-303					
4	회계	사무 권사	구영희 Koo Young Hoe	15		○ X	88-747					
5	의료	사무 안수집사	권영일 Kwon Young Il	14		○ ○	91-61					
6	팀원	사무 서리집사	김명식	1		X ○	2000-0554					
7	팀원	사무 서리집사	유외숙 Yoo Ooi Suk	1		X X	2000-0521					
8	팀원		이지현 Lee Jih Yun	1		○ ○	99-935					
9	팀원	사무 전도사	주은숙 Ju Eun Sook	1		X X	98-427					
10	팀원		황가영 Hwang Ka Young	1		X X	2006-0334					

※ CMTC 선교훈련 및 선교수련회는 출발 5주전까지 필히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 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5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진은 반드시 6개월 이내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Mail Address는 팀장, 총무, 서기, 회계만 기록요망 [2019. 3. 양식변경]

담당

분과장

4/28
황수안4/28
정재명

몰도바 2팀 선교소감문

정종원(15교구)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된 몰도바 단기선교였다. 선교준비기간동안 작년 선교경험을 토대로 어린이 사역과 청년사역을 의욕적으로 준비했고 인형극을 열심히 연습하여 몰도바에서 힘껏 사역할 것을 기대하며 사역지인 키시나우에 도착했다.

목사님 가족과 사역일정 협의 시 현지 휴가기간과 방학기간이 겹쳐 선교팀 사역기간 중 어린이 사역과 청년 사역이 어렵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어쩔 수 없는 낙심이 있었다. 그러나 팀장님을 비롯하여 전 팀원들이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선교기간 중 사용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낙심치 않고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히려 인간적인 준비나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다.

매일 공원과 라푸시나 지역을 다니며 노방전도를 통해 몰도바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게 하시고 어디에나 믿음으로 받는 이들을 허락하셨다. 또한 우리 교회 외에도 몰도바 영혼들을 사랑하여 각국에서 선교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온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어, 우리의 발걸음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동역하는 복된 걸음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토요일 니콜라이에프가 지역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초청한 집회에 부모님을 비롯한 90여 명이 모이는 예상치 못한 은혜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그레이스언약교회 찬양팀과 우리 선교팀이 준비한 찬양과 율동을 어린이들과 함께 하며 주님을 높이고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에서 힘들게 연습하며 대본을 영어번역과 몰도바어번역을 거쳐 현지 청년들이 녹음한 파일로 현지에서까지 맹연습한 인형극을 통해 많은 몰도바 어린이들과 부모님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음이 너무도 큰 은혜였다. 어린이들이 정말 눈을 반짝이며 집중하며 인형극을 관람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광경은 주님,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자리였다.

주일에는 예배 특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몰도바 통해 매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몰도바를 통해 주사랑 알기 원한다'는 고백을 하며 전 선교팀원이 눈물 뿌려 찬양드리는 은혜가 있었다. 역시 주일 예배 특별순서로 인형극 공연을 하며 우리 선교팀의 복음의 메시지를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마침 결혼식으로 함께 참석한 하객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공원 노방전도 시에도 선교팀의 찬양으로 공원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율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일대일 전도에도 많은 이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영접기도까지 하는 은혜가 계속되었다.

선교를 마치고 보니 우리가 계획했던 사역들보다 더 많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다. 선교는 주님께서 이루어가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목도하게 하시며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된 2019년 몰도바 선교였다.

몰도바 2팀 홍정호권사

주님 !몰도바를 향해 부족한 저희들을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팀은 청년부 부터 장년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팀으로 모였다
먼저 주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주님께서 우리팀에게 주신 뜻을 위해 기도로 팀모임을 시작했다
팀원들의 모습속에서 먼저 나를 보게 하셨고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케 하셨다
우리팀은 청년사역과 어린이 사역에 열중했다
다만 우리의 열심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일에 앞서지 않기를 기도하며....
두번째 가는 몰도바라서 그곳의 사정과 그곳의 필요를 알고 준비하는 팀모임은 참으로 은혜롭고 열심 이었다
열심인 팀원들을 바라보며 주님은 동역자들의 귀함을 알게 하셨다
마음을 합하여 선을 이룰수 있도록...
이번선교에서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노방전도를 통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이심을 전하고
공원에서의 길거리 찬양은 울려퍼져나가는 찬양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수 있는 큰은혜 속에 거할수 있었다
찬양과 울동을 따라하는 몰도바의 귀한 사람들
그들속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내리길 간절히 기도하며 ...
강하게 거부하는 분.먼저 다가오는분
아픈 딸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며 기도를 받는 귀한 엄마와 딸
교회를 떠났지만 다시금 주님의 복음을 듣고 기도받는 두아이의 엄마
노방전도를 통한 찬양과 전도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느낄수 있었다
반갑게 맞아주는 그레이스 언약교회의 성도들
서로 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이번 선교는 뭇지모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
90여명이 모인 니콜라이 예프가에서의 어린이 사역은 서로를 주안에서 하나로 만든 주님의 크신 은혜였다
생긴것과 나라는 다르지만
주님께, 주님을 향한 찬양속에 우리는 주안에서 한형제요 자매였다
돌아오는길에서 팀원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바라보며~
그모든것이 몰도바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우리의 동역이였음을 깨닫게 해 주셨다
나는 얼마나 그들을 위해 기도 했었나?
혹시라도 나의 열심이 주님의 복음 전함에 방해가 되진 않았을까?
다시금 주님앞에 무릎을 꿇어본다
그레이스 언약 교회가 그땅에 귀한 그루터기가 되길 기도드리면서
주님의 복음을 들은 몰도바의 귀한 사람들을 위해.....
주님! 감사합니다

몰도바 2팀 주은숙 전도사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선교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몰도바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면서 함께 선교를 가자는 교구권사님의 권유로 함께 하게 되었다.

첫 팀모임부터 열의가 대단한 팀원들이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에 팀모임을 하면 밤9시가 넘어서 끝난다.

현지에서 사역 할 각자의 역할을 배정하고 준비가 다 되면 팀원들을 서로 가르치며 주일에도 모여 연습을 했다.

현지에 도착하는 날~~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공원으로 향하여 찬양하며 노방전도를 실시했다.

처음 팀모임부터 열의가 있는 팀인데 도착 한 날부터 선교사역의 시작이었다.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있었는데....

그동안 다녔던 선교지는 속전속결로 전도하고 공안이 오기 전에 그 지역을 빠져나갔는데 그곳에서는 공원에 마이크와 스피커도 가져가서 기타도 악기도 하며 더 더 크게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했다.

찬양도중에 어린아이들과 함께 율동도 하고 예수님 전하기 정말 좋은 곳이었다.

그곳에 있는 하얀피부와 금발에 초록눈동자를 가진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들은 검은 머리에 검은눈동자를 가진 우리를 신기한 듯 쳐다본다.

“아~~이것이 장점이구나~” 쳐다보는 즉시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을 받습니다.” 부족한 언어지만 그들은 우리의 열정적인 복음전달에 금방 고개를 끄덕이며 영접기도를 따라한다.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순간들이 었다.

몰도바 키슈나우에 임대교회가 아닌 주중에도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그레이스 언약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길 소망하며, 열악한 환경에도 교회를 지키는 스테반 선교사와 중간에 영어 통역으로 서로 소통하도록 도와주는 그의 딸 잉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한다.

몰도바 2팀 구영희 권사

✠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통해
주사랑알기 원하네 ✠
단순한 찬양곡이지만
간절한 우리마음이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샘을 자극하여 깊숙히 젖어 들어갔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를 통해 공원,터미널, 또한 그레이스언약교회에 전해지는것 같다
공원과 터미널에는 러시아인들이 많이있었지만 준비된 몰도바 전도 문장 이나 전도지로는 복
음을 전할수없었다
저들이 복음을 들을수있는 기회를 놓친것 같아 안타까웠고 "러시아어전도지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로인해 한국어를배우는 학생들도있었고 한국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
울이는 모습을보며 성령의 바람이 이땅에 불어 주의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한다

학교 근처 공터에서는
길거리에서 보이지 않던 어린이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대략 80~90 명정도 모인것같다
팀장, 집사님들, 스테반목사님의 많은 수고늘 거친 " 부자와 나사로 " 인형극은 아이들의 관
심을 끌기엔 최고인것같다
우리말을 영어로 영어를 몰도바어로 준비하며 몇번의 수정을거친 인형극,
땅바닥을 의자삼아 앉아서 집중하여 지켜보는 0어린이들의 눈망울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던
지~~
그안에 숨겨졌던 메시지가 저들에게 확실하게 드러났을줄로 믿는다

기도제목이 더욱 간절함으로 다가온다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것과 아는일,또한
그에게까지 자랄수있도록 ~ 그레이스언약교회가 그일을 잘 감당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차량을 주셔서 저들을 교회로 인도할수 있기를~
복음전하는중 받은 이메일주소에 교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좋은 소식을 전하여 지치고 곤
한영혼들이 주를 믿고 그안에서 소망가운데 살아갈수있도록 ~

소 감 문

선교지에 보내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게 부담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선교지에서 제가 많이 고생하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교지에 대해서 많이 기도라고 준비하였습니다.

팀원들이 후원에서 관양을 한 20분 부르고 우리가 준비한 터론 입고 전도하니깐 다들 예수님 전하러 왔구나 알고 전히 받아주셨습니다.

스티반 목사님의 노력과 헌신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처럼 저중고동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큰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어도 차가 없어 못 오는 상황이 많습시다.

버스가 있다면 좋은 예수님 발이 되겠습니다.

폴로바 젊은이들이 나라안 사정이 이러외 주변국에 나가 있습니다.

나라가 잘 살고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되길 기원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 가며 지속적인 선교로 그곳 폴로바 영혼을 향한 예수님 아픔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택한 백성, 예수님 복을 받고 그 길은 늘드로 영접하서는 이틀 보면 제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행복해 합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일생의 큰 축복입니다.

12주 김병석.

몰도바 2팀 선교소감문 유 외 숙 집사

첫 선교~ 설레는 마음과 약간의 두려운 마음

두 마음을 품고 떠난 몰도바 첫인상은 참으로 평화로운 느낌의 나라였다 공항 도착하여 현지 목사님(스데반 목사님) 가족들이 우리를 반겨 맞아주셨다 목소리로 먼저 만나 목사님~언어준비를 목사님께서 녹음해 주신 음성파일로 익혔다 사모님과 딸 모두 반가웠다 도착해서 교회에 들렀다 내가 생각한 교회에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과연 이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이 열악했다 하지만 주일에 예배 드릴때 완전 환경적인 것은 열악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모습은 한국 어느 교회 못지않게 열정적인 찬양과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나는 너무 부끄러웠다. 에어컨도 없고 더운 공간에서 예배드리는데 모습에 나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부끄러웠다 둘째날 공원사역 가운데 열심히 외운 선교 언어들을 가지고 자신 있게 전도를 해보겠노라 하고 우리나라 보다는 낯갓지 하는 바람으로 나간 전도는 결코 쉽지 않았다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다가가 인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다 나는 나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보았다. 이방인인 나의 어눌한 언어로 열심히만 하면 어찌되겠지 하는 짧은 생각이 참으로 창피했다. 하지만 팀원들 모두가 서로서로를 격려하며 같이 전도사역을 하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다. 주일예배참석을 위해 교회를 방문했다. 교회는 너무나도 잘 꾸며져 있었다. 주일예배를 위해 목사님과 성도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준비찬양 부터 예배의 모든 것 또한 결혼식도 있었다. 참으로 수수한 결혼식이었다. 목사님의 말씀과 주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간 인형극 등등 하나님 앞에 드러진 예배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것이라 느껴진다. 선교사역 평가회의 가운데 우리 모든 팀원들이 느낀 것중 하나는 기도의 중요함을 깨달았다.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물건을 구입하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이었다. 끝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몰도바라는 땅까지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다 한량없으신 크신 은혜를 나는 체험했고 감사를 드린다.